

롯데쇼핑, 2000억 규모 최첨단 자동화 물류센터 ‘첫 삽’

부산 풀필먼트 센터서 기공식 열려
4만5000여종 상품, 日 3만건 배송
품질·누락·오배송 등 불편함 개선
부산CFC, 친환경 물류센터로 운영

롯데쇼핑이 온라인 그로서리 사업 강화를 위해 최첨단 자동화 물류센터 건설에 본격 착수한다.

롯데쇼핑은 5일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에서 열린 최첨단 자동화 물류센터인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 기공식에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영국의 글로벌 리테일 테크 기업 오카도와 파트너십 계약을 맺은 지 약 1년만이다. 첫번째 고객 풀필먼트 센터 건립 지역으로 부산을 선정하고 부지 마련, 시설 설계 등 준비기간을 거친 후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

부산의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는 오카도의 통합 솔루션인 오카도 스마트 플랫폼(OSP)이 적용된 롯데쇼핑의 첫 번째 물류센터다. 연면적 약 4만2000㎡(약 1만2500평) 규모로, 상품 집적 효율성을 높여 기존 온라인 물류센터보다 상품 구색을 2배 가량 많은 4만5000여 종으로 늘렸다. 배송 처리량 역시 약 2배 늘어난 하루 3만여건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비용은 약 2000억 원이다. CFC건립공사가 완료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부산 강서구 미음동 국제산업물류도시에서 열린 최첨단 자동화 물류센터인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 기공식에 참석, 참석자들과 기공축하 행사를 갖고 있다. /뉴시스

2025년 말부터 부산과 창원, 김해 등 경남지역 약 230만여 세대의 고객들에게 혁신적인 쇼핑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롯데쇼핑은 내다봤다.

CFC에서는 데이터 및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수요 예측과 재고 관리는 물론, 상품 피킹과 패킹, 배송 노선을 고려한 배차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로 이뤄진다. 매일 최대 33번의 배차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지연없이 배송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이 온라인 장보기 과정에서 겪어왔던 상품 변질, 품질, 누락, 오배송, 지연배송 등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쇼핑 편의성과 고객 만족도를 크게 높일 전망이다.

특히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상품을 보관하고 있는 바둑판 모양의 격자형 레일 설비인 ‘하이프(hive)’와 피킹 및 패킹을 담당하는 로봇인 ‘봇(bot)’이다. 하이브에는 최대 4만5000개 이상의 품목을 보관할 수 있으며, 1000대 이상의 봇들이 하이브 위를 최대 초속 4m로 이동하며 상품을 피킹 및 패킹한다. 봇은 서버와 초당 10회 통신하며 최적화된 경로로 이동해 고객 주문 후 배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 해준다.

또 국내 소비자의 생활 패턴에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신선식품 구매 성향을 비롯해 밀집된 주거, 교통 환경 등 생활 환경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냉장 및 냉동식품 구매

성향이 높은 점을 감안해 저온 환경의 상품 보관 및 배송 체계를 확대하고, 아파트가 많고 교통 혼잡이 빈번한 문화를 고려해 국내 배송차량에 적합하도록 맞춤형 프레임을 별도로 개발하고, 배송박스 구성도 새롭게 설계한다. 더불어 국내 소비자의 높은 온라인 쇼핑 수준에 맞추기 위해 온라인 애플리케이션(APP)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산CFC는 친환경 물류센터로 운영된다. 이곳에서 배송되는 상품은 모두 전기차량을 통해 고객에게 배송된다. 아울러 건물 옥상 주차장에 연간 약 2000MWh(메가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조성한다. 이는 부산CFC 전력 사용량의 약

30%에 달하는 전력량이며, 연간 약 1000t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롯데쇼핑은 내다봤다.

이 외에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품 판매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센터 운영과 배송에 필요한 인력으로 2000개 이상의 안정적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사회 업체 발굴 및 상품 소싱·판매를 통한 판로 확대와 상생 발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됐다.

롯데쇼핑은 부산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 유통 플랫폼인 오카도 스마트 플랫폼을 적용한 CFC를 전국에 6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에 이은 두번째 CFC는 수도권 지역에 건설해 서울, 경기권 고객들에게도 차별화된 쇼핑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상현 롯데쇼핑 부회장은 “부산CFC는 롯데의 새로운 온라인 그로서리 사업의 초석이 되는 첫번째 핵심 인프라다”면서 “롯데쇼핑은 국내에 건설될 6개의 고객 풀필먼트 센터를 바탕으로 국내 온라인 그로서리 쇼핑 1번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불공정 관행 잡는다... 금리·수수료 선과제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신설

감독 당국이 불공정한 금융 관행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첫 타자는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불만이 많았던 금

리 산정과 수수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5일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소비자 눈높이에서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권익보다 회사 이익 추구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며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기울어진 운동

장을 바로잡아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총괄·조정 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처에 설치한다.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다.

위원회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공정금융팀도 설치한다. 자체적인 개선과

제 발굴, 우선 추진과제 선정, 부서간 협의·조정, 성과관리 등 체계적 과제관리 기능을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가장 먼저 개선 과제로 오른 대상은 금리와 수수료다. 금리, 수수료와 관련해 부당하게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일도 여전한 상황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세상은 바뀌어도 우린 여전히 그사랑이 그립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여전히 그리운 사랑이 있습니다.
서툰 표현에 가려진 묵묵한 아버지의 사랑.
언제나 너를 품을 내어준 어머니의 사랑.
오늘, 가슴을 온기로 채워줄
그 사랑을 만납니다.

100만
관람객이 찾은
감동 전시

“오랜만에 잊었던 앨범을 꺼내는 듯했다.” _서희정, 직장인
“생의 출발은 어머니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_김용경, 교원
“지난날 아버지께 대한 오해가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시간” _문경아, 주부

진심, 眞心 아버지를 위한 展

관람객 20만 돌파
전국 8회 순회 전시
약 170점 전시

창원의향 하나님의 교회
2023. 4. 13. ~ | T. 055-263-1925
새예루살렘 미래성전
2023. 8. 17. ~ | T. 031-703-1925
원주 하나님의 교회
2023. 11. 2. ~ | T. 033-746-3735

우리 어머니

10년 통런, 관람객 88만
전국 73회 순회 전시
언론 500회 보도

대구반야월 하나님의 교회
2023. 3. 3. ~ | T. 053-981-2881
전주호성 하나님의 교회
2023. 4. 20. ~ | T. 063-253-1922
서울관악 하나님의 교회
2023. 8. 24. ~ | T. 02-885-9267

• 주최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 주관 (주)멜기세덱출판사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 watv.org
WORLD MISSION SOCIETY CHURCH OF GOD

전시 일정은 변동 가능하니, 지역별 전시관에 문의 바랍니다.